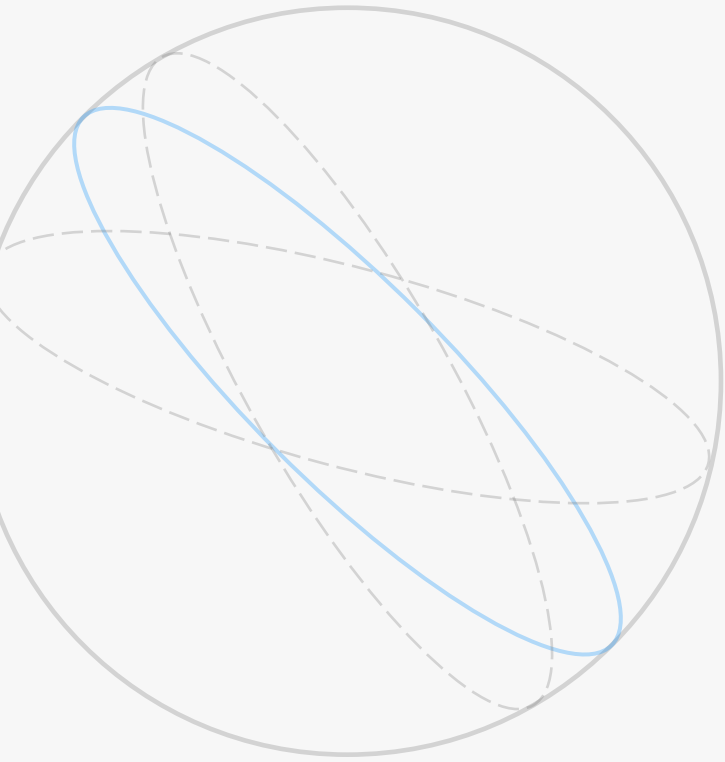


2024

한미약품

12월 19일 임시주주총회 설명자료

DISCLAIMER



본 프레젠테이션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구성된 의견입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표현되거나 내포된 모든 진술이나 의견은, 타인이 투자 관련 결정으로 본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오로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공개되었으며, 투자, 금융, 법률, 조세 및 기타 다른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프레젠테이션은 완전하거나 포괄적이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본 프레젠테이션에 명시된 바에 의해 계약, 청약, 청약의 권유, 또는 어떠한 거래를 착수하거나 완결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언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미래 예측형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을 포함합니다. 모든 미래 예측형 진술은 우리의 믿음과 예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예측이 어렵고 실제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예측형 진술에 의존하여 실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아니되며,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형 진술에 명시되었거나 함의 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 수신자는 본 프레젠테이션을 각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독립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한미약품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
금번 임시주총 안건은 **모두 반대**해 주십시오.

임시 주총 안건에 **모두 반대**해 주셔야,
한미약품의 확고한 미래 가치와 경영안정이 보장됩니다.

한미약품은 주주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반드시 도약**하겠습니다.

CONTENTS

01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02

주주총회 주요 의안
세부사항

03

Business Highlights

04

팩트체크
(Q&A)

05

Appendix

임시주주총회 개요

이사 해임의 건은 최대주주의 투명하지 못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입니다.

구 분	문 제 점
1. 절차의 불투명성	• 박재현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에 업무방해 시정을 요청하고,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대표이사 해임 요구 •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해서는 형제 측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이사 선임 3개월만에 해임 요구
2. 불합리한 해임사유	•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 • 기업가치나 주주 이익을 훼손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행한 적이 없음 • 별도 상장법인인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인사 발령, 비용 집행 등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3. 형제 측 인원 선임을 위한 해임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경영진을 수 차례 고발 • 형제 측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현 이사 해임 제안 • 형제 측이 제안한 후보들의 임원 적격성 결여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한미사이언스의 인사권 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해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문제 제기 하자
해임 안건을 제안하면서 대응한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까지의 주요 경과 정리



2024년 4월

- 임종훈 사장, 한미사이언스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박재현 대표이사 승인 없이 한미약품 신규 입사 2명 인사발령 강행
※ 한미약품은 인사팀, 정보팀, 법무팀 등 별도 조직없이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해당 부서에 업무 위탁하고 수수료 지급



2024년 5-6월

- 송영숙 회장, 위법한 인사발령 문제 제기 → 임종훈 사장,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공동 대표이사를 **해임**
-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제 측 지지한 ○○○(임종훈 대표이사 사촌)을 **인사 발령없이** 한미약품 부사장 채용



2024년 8월

- 박재현 대표이사가 ○○○ 급여 지급 중단 지시 →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지시 거부 및 급여 지급 지속
- 박재현 대표이사, 인사권 침해 타개하고자 한미약품 인사팀 신설 등을 포함한 일부 조직개편 시행 (업무 위탁 계약은 유지)
- 임종훈 사장, 박재현 대표이사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 관장 업무를 제조 본부로 제한하는 인사발령 강행 (법적으로 무효)



2024년 9월

- 한미약품 측, 한미사이언스에 위법/부당한 인사발령 취소, 업무 위탁 계약 원활한 이행 등 요구 → 전혀 응하지 않음
- 박재현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 임시이사회(9월 27일) 전날 '시정 조치' 내용 이메일을 한미사이언스 이사들에 발송
→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 '인사권 침해 및 업무방해' 조사 착수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 관련 논의 전혀 없었음)
- 9월 30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보도자료 배포**

한미사이언스 측
이사 해임 사유

- 1) 박재현 대표이사가 독립 경영을 선포하며 경영상 혼란 초래 →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한 형해화 상황 타개 위한 최소한의 조치**
- 2) 박재현, 신동국 이사의 R&D 투자 경시 태도 → **전혀 사실 무근**

해임 사유 부존재

한미사이언스의 9월 30일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해임 사유는 근거가 없습니다.”

01

한미사이언스에서 언급한 해임 사유는 9월 30일자 보도자료가 유일합니다.

9월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복성’으로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시도를 하다 보니 해임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02

한미약품의 인사팀 등 신규 조직 신설은 경영 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구행위 입니다.

박재현 대표이사의 인사권 행사는 이미 수개월간 지속된 한미사이언스의 권한 남용, 업무 방해 및 ‘업무위탁 계약’ 위반 행위를 방어해 임직원과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이미 한미약품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 모두 인사팀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박재현 대표는 R&D를 최우선 과제로 미래를 준비하며, 한미약품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 출신인 박재현 대표는 꾸준한 R&D 투자는 물론, 효율화를 위한 ‘질환별 연구팀 구성’, ‘제제연구소 독립’ 등 미래를 위한 조직 환경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Hanmi Pharm Innovation Day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며 지속적인 R&D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

신동국 이사는 R&D를 경시하거나 박재현 대표이사를 뒤에서 조종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동국 이사는 R&D를 경시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R&D 역량 강화와 유망 파이프라인 발굴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박재현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한미약품의 R&D 중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갈 것입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형제측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한미약품 경영에 간섭하여 지배구조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 분	문 제 점
1. 핵심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	• 한미약품 대표가 승인하지 않은 임원 채용 및 급여 지급 • 정당한 근거 없이 한미약품 대표에 대한 무차별 고발 • 한미약품 경영관리업무(인사/총무/관재/회계/재무 등) 비 협조 및 업무 위탁 계약 미 이행 •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권한 없이 한미약품 대표의 직급을 전무로 강등하고 관장 업무 축소
2. 부당한 의사결정	• 한미약품 임원 인사권에 부당하게 관여 • 한미약품 대표 의견을 무시한 채 한미약품 관련 의사 결정
3. 회사 자원의 임의 유용	• 코리 그룹 산하 중국 법인과 북경한미약품 간의 내부 거래 이슈 (한미약품 자체 조사 진행 중) • 임종훈 대표가 회장이고 그의 자녀가 선수 등록되어 있는 한국라크로스협회에 회사 자금 기부 • 임종훈 대표가 재단 측에 '의결권 확약 시까지 회사의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공문 발송 (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 자금 사용과의 대가 관계 형성)
4. 불성실한 경영활동	• 임종윤 사내이사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사회에도 주로 전화로만 참석
5. 경영 안정화 의지 부족	• 형제 측은 '가족 간의 화합'을 외쳤으나 송영숙 회장을 해임하여 갈등을 더욱 키움 • 상속세 및 오버행 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형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권 분쟁 장기화되는 측면도 존재함

CONTENTS

01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02

주주총회 주요의안
세부사항

03

Business Highlights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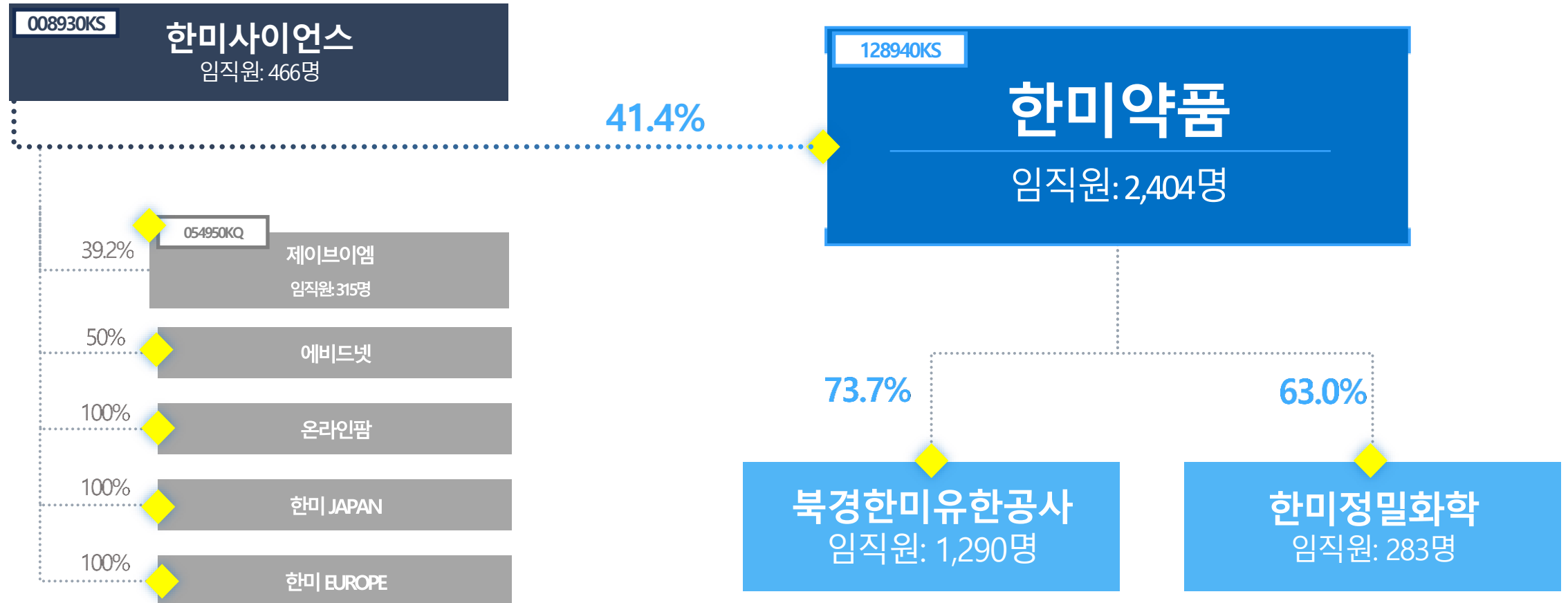
팩트체크
(Q&A)

05

Appendix

한미약품 소유지배 구조

한미약품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는 “이미 자체 관리조직(인사, 법무, 재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사회 현황

한미약품 이사회 BSM (Board Skills Matrix)

구분	직명	성명	주요 경력	성별	리더십	산업	신약 R&D	법률	재무	경영	글로벌 역량	리스크 관리
기존	사내이사	박재현	現) 한미약품 대표이사 前) 한미약품 부사장	남	●	●	●			●	●	●
		박명희	現)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본부장 前) 화이자코리아 마케팅 및 관리책임자	여	●	●		●		●		●
		임종윤	前)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남		●	●			●	●	
		임종훈	現)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現)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남	●	●				●	●	
	사외이사	황선혜	現)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現)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여	●			●		●		●
		윤영각	現) 파빌리온자산운용 대표이사 회장 前) KTB프라이빗에쿼티 회장	남				●	●	●	●	●
		윤도흠	現) 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前) 세브란스병원 병원장	남	●	●	●			●		
		김태윤	現)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규제학회 회장	남		●		●		●	●	●
		남병호	現) 헤링스 대표이사 前)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남		●	●				●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現) 한양정밀 대표이사	남	●				●	●	●	●
신규	사내이사	박준석	現)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남		●				●		
		장영길	現)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남	●	●						

임시주주총회 안건 설명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건명	권고	사유
제1호 의안 : 이사 2인의 해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반대	- 지주사 이사회 결의 없이 지주사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형제측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현 이사 해임 시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제1-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	반대	- 우수한 경영성과 도출로 경영역량이 입증된 박재현 사내이사를 해임 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신동국 이사는 지난 6월에 선임되어 이사회에 대한 기여와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제2호 의안 : 이사 2인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	반대	- 계열사 대표이사 재직 시 가시적인 경영성과 부족 -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의약품 판매 관련 전문성 미흡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	반대	- 독립적이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만 우호적인 의사결정이 우려됨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반대



박재현 이사 / 1968 年生

사내이사

박재현 이사는 1993년 제제연구소로 입사해 한미약품 대표 개량신약 ‘아모잘탄’ 개발에 기여했으며, 제조본부장을 거쳐 2023년부터 한미약품 대표이사로서 제약강국을 위한 지속가능 혁신경영에 매진중.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품질관리, 생산 및 영업·마케팅을 총괄하며 R&D 중심 신약개발 기업의 의욕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함. 박재현 이사는 지난 11월20일 국내 최고 권위의 품질 진흥 행사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수상함. 박재현 이사가 해임되면 한미약품은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 상실 및 일부 지배주주의 의중대로 운영되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하락이 예상됨.

[BSM 관련 전문분야]

리더십	●
산업	●
신약 R&D	●
법률정책	
재무회계	
경영	●
글로벌역량	●
리스크 관리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現) 한미약품 대표이사(23.3월~현재)
- 한미약품 부사장(제조본부장)
- 한미약품 전무이사(팔탄공장 공장장)
- 한미약품 상무이사(제제연구 및 품질)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제약학 박사
- 영남대학교 제약학과

해임의 부적절성

- 박재현 대표이사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기업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형제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음
- 제약바이오 산업은 중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성과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2023년 3월에 선임된 박재현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임될 경우 한미약품의 향후 전략과 중장기 계획 달성이 불가능함 (03 Business Highlight 참조)
-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 요구는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임

한미약품 최근 독보적 경영 실적 (경쟁사 비교)

*연결 기준

“코로나, 경영권 분쟁,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독보적 경영 실적”을 보여줌을 강조

한미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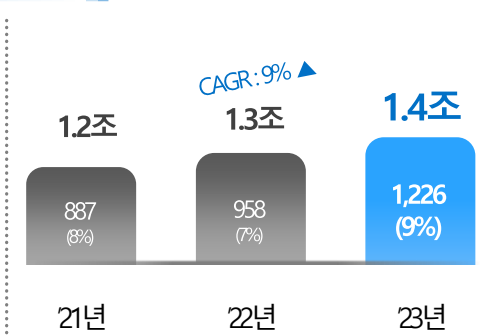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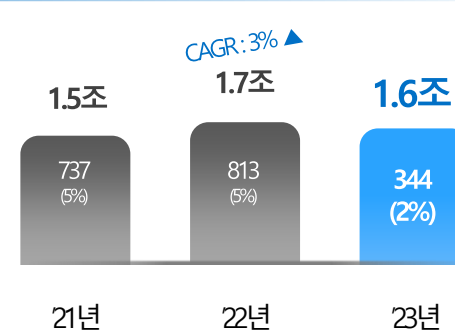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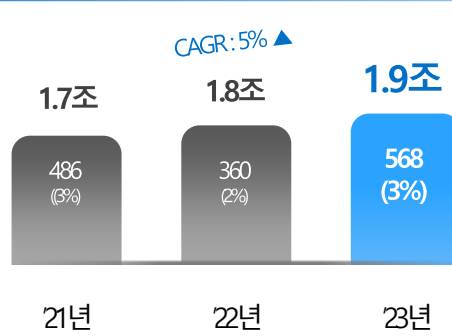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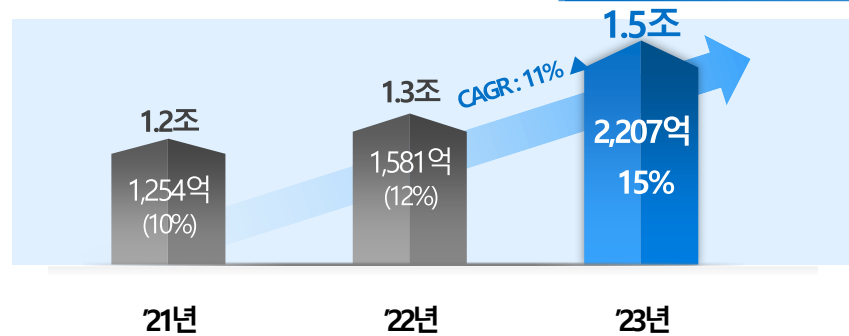
Y사

G사

D사

매출·영업이익(%)

경영효율화 등 수익성 재고 노력으로 경쟁사대비 수익성 최고 수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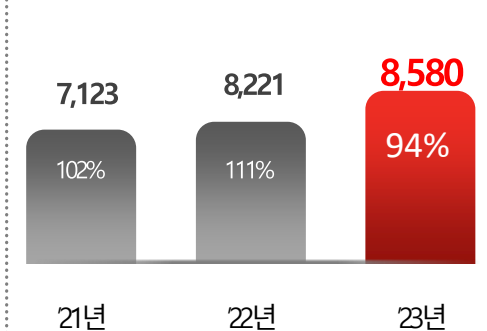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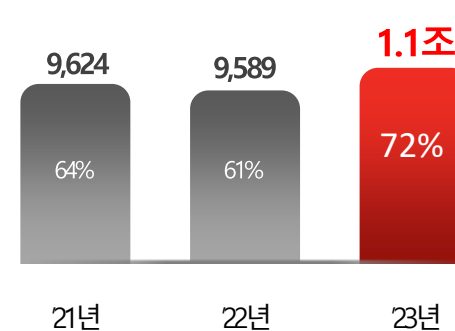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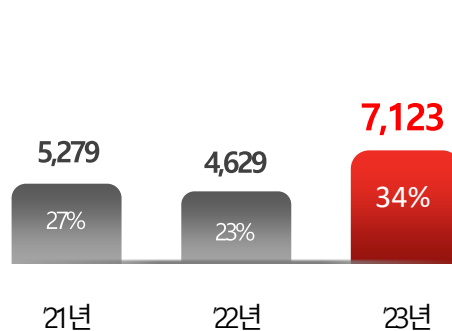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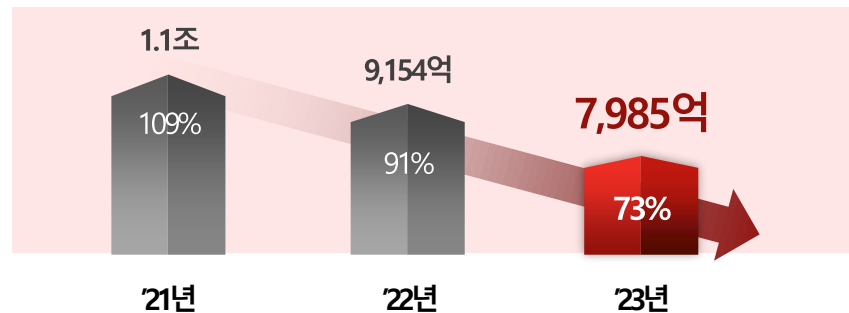
부채비율

*총 자본 대비

차입금 비중이 과다 했으나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부채비율 경쟁사 수준으로 감소

부채 *24. 3Q: 7,261 (58%)

* 차입금: △1,724억 ↓ ('22년 6,668억 → '23년 5,635억 → '24년 4,944억)



제1-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

반대



신동국 이사 / 1950 年生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1981년 한양정밀을 창업한 이래 40여년 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주요 건설장비 등 조립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현직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HD현대인프라코어, 볼보, 한국 GM 등의 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사업 중이다.

품질 제일/고객 중심/원칙과 정도 경영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IMF와 global 인프라 산업 장기 불황 등의 대외적 위기 속에서도 기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중이다.

[BSM 관련 전문분야]

리더십	●
산업	
신약 R&D	
법률정책	
재무회계	●
경영	●
글로벌역량	●
리스크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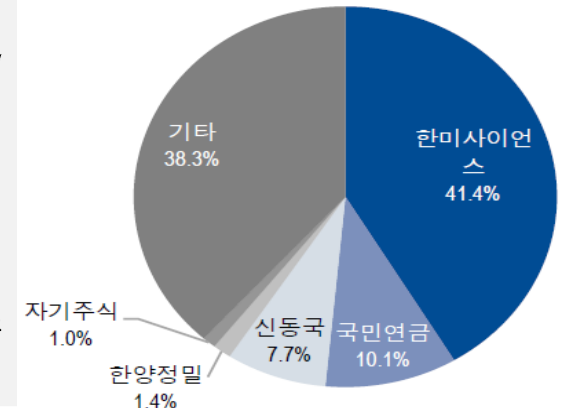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現) 한양정밀 대표이사
- (現) 한미약품 기타비상무이사
- (前) 주식회사 가현 공동대표이사
(2024.09.23. 사임, 2024.09.30. 사임등기 완료)
- (前) 주식회사 한양에스앤씨 공동대표이사
(2024.09.23. 사임, 2024.10.02. 사임등기 완료)
- (前) 주식회사 에이치앤디 대표이사
(2024.09.23. 사임, 2024.10.04. 사임등기 완료)

해임의 부적절성

- 줄곧 한미약품그룹의 기업가치 상승, 주주가치 수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왔으며, 한미약품 개인 최대주주임 (한양정밀 포함 9.1%)
- 제조업 전문가로서 타 산업분야 경험을 약품의 제조혁신, 효율화 등에 기여 기대
- 한양정밀에 대한 무차입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재무건전성 증대에 기여
-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횡령, 배임, 및 사익편취 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음
-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지 불과 3개월만의 해임 요구는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임

한미약품 지분 구조



한미약품 주주 이익을 대변해 온 신동국 이사

신동국 이사는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지금의 한미약품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미약품 주주 이익을 위한 개인 최대주주로서의 역할

- 2000년 11월, 한미약품에 동신제약 지분 60만주를 넘기며 한미약품의 동신제약 인수합병에 기여
- 한미약품 최초 자체 개발 신약인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에 투자
- 2024년 6월, 약 1700억원 투자해 대주주 '오버행' 이슈 적극 방어
 - 마진콜에 의한 주가 폭락 사태 막아 주주를 보호하고, 해외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
- 대주주연합체 합의를 통한 경영모델인 '머크식 경영 체제' 적극 지지
 - 대주주들이 뒤에서 미래 성장 전략 및 혁신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전문경영인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의사결정 체제 제시
 - 한양정밀, 전문경영인 별도 선임 : 신동국 이사 친아들 역시 전문경영인 지시와 통제 하에 업무 수행 중
- 특정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다층적인 주주이익을 위한 활동

최대주주로서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는 역할에 책임자

- 그룹 지주사의 최대주주로서 개인적인 이해가 전체 주주와 일치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는 역할에 책임자
-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촉발된 대주주간 갈등을 '한미그룹 최대주주 지위의 강력한 중재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 반대



박준석 사내이사 후보 / 1972 年生 신규선임(사내이사)

박준석 사내이사후보는 2010년 한미그룹에 입사하였다. 2012년부터 한미헬스케어 대표에 오른 바 있으며, 한미사이언스에 합병된 2022년 11월부터는 한미사이언스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나 8개월만에 퇴사한 후 2024년 5월 재입사하였다.
또한, 2023년 3월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로도 선임되었으나 약 3개월만에 돌연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BSM 관련 전문분야]

리더십	
산업	●
신약 R&D	
법률정책	
재무회계	
경영	●
글로벌역량	
리스크 관리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現)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 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
-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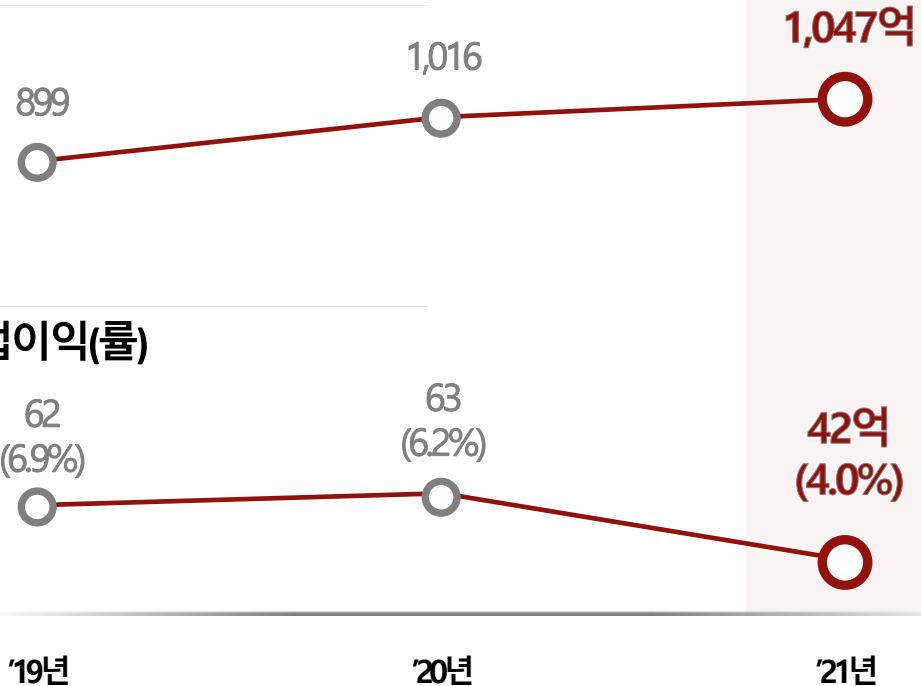
선임의 부적절성

- 박준석 사내이사후보는 2023년 3월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사내이사로서 회사 및 주주이익 증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선임 3개월만에 퇴사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
- 박준석 사내이사 후보는 진단검사,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업무를 주로 했던 인사로 한미약품에서 필요로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의약품 판매 관련 전문성은 부재함
- 박준석 사내이사 후보는 임종훈 대표이사와 함께 한미헬스케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 보유, 인맥에 기반한 오너경영 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이사 추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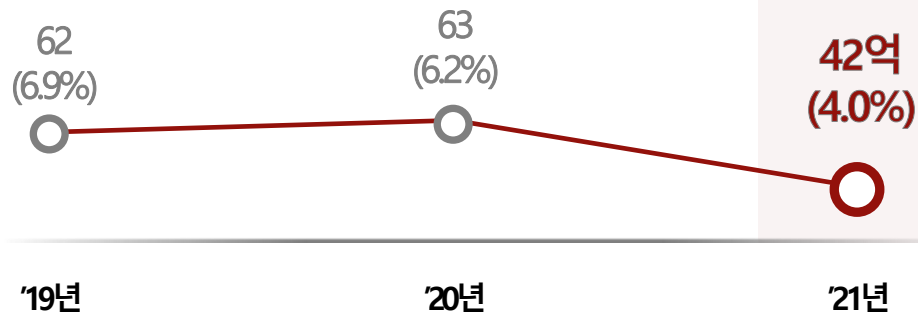
박준석 대표이사 한미헬스케어 재직시 부실한 경영실적

- 2010년부터 박준석, 임종훈 각자대표로 한미헬스케어 경영
- 2017년 적자 이후 급격한 **부채 증가** ('21년 부채총계 2,178억원)
- '22년 한미헬스케어의 합병 후 한미사이언스 재무상태 악화 → **주주가치 훼손**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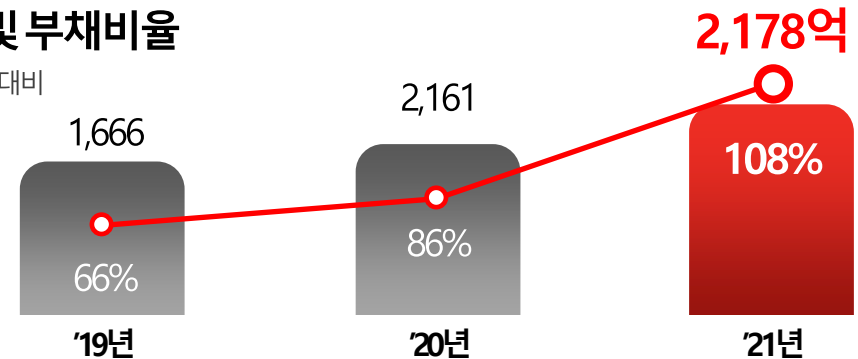


영업이익(률)



부채 및 부채비율

*총 자본 대비



헬스케어 합병 전·후 한미사이언스 재무상태

* 2022.11 한미헬스케어 합병 종료 (전자공시 기준)

	합병 전	합병 후
부채	933억	3,070억
자본	5,070억	6,410억
부채비율	18.4%	47.9%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 **반대**

장영길 사내이사 후보 / 1956 年生

신규선임(사내이사)

장영길 사내이사 후보는 1990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한미약품 연구센터에서 주로 제네릭 원료 물질의 합성법 연구에 주력하였다.

2010년대에 한미약품 연구센터에서 R&D 영역을 기존 제네릭, 개량신약 중심에서 신약에 집중하게되면서 2012년에는 원료 의약품 전문 자회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에 재직중이다.

[BSM 관련 전문분야]

리더십	●
산업	●
신약 R&D	
법률정책	
재무회계	
경영	
글로벌역량	
리스크 관리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現)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 한미약품 연구센터 연구위원
- 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 연세대학교 화학과 학사,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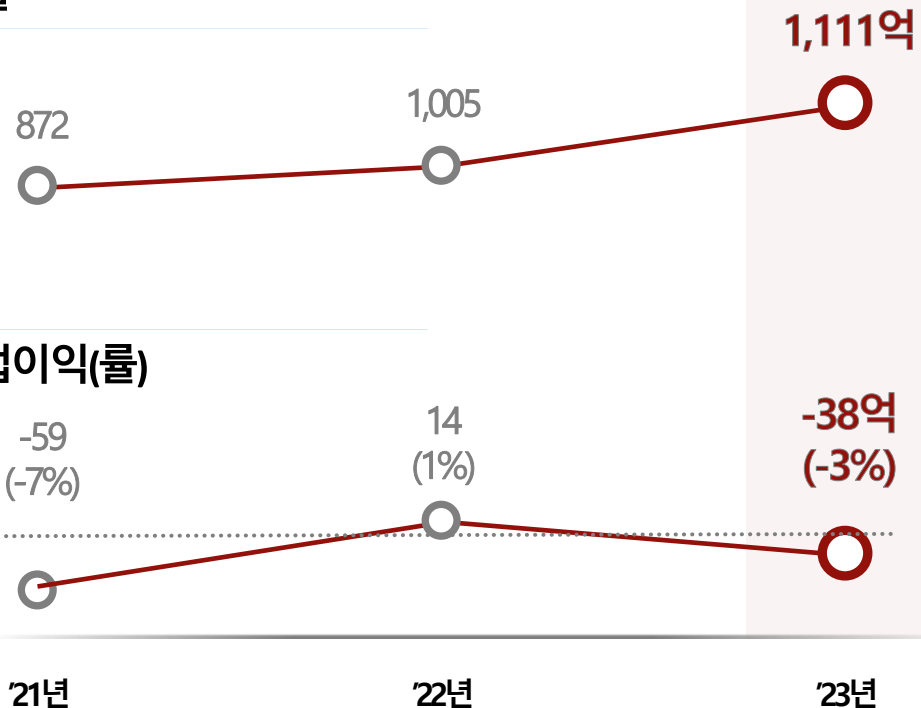
선임의 부적절성

- 장영길 사내이사 후보는 저분자 합성 원료의약품, 특히 제네릭의 제조 분야 업무를 주로 했던 인사로 한미약품에서 필요로하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포함한 신약 연구, 바이오의약품 생산, 의약품 판매 관련 전문성은 부족함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한미정밀화학의 경영실적 정체 및 부진 장기화
- 장영길 사내이사 후보는 임종훈 대표이사와 함께 현재 한미정밀화학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어서 인맥에 기반한 오너경영 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이사 추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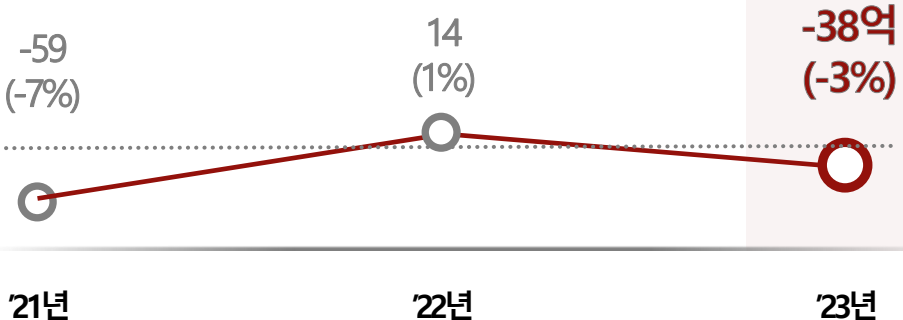
장영길 대표이사 한미정밀화학 재직시 저조한 경영실적

- 2015년부터 장영길 대표이사 한미정밀화학 경영
- 합성원료의약품 신규 개발 부재로 **만성적자 지속**
- 한미약품 연결 **영업손익 감소**에 악영향

매출



영업이익(률)



주요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 실적 비교

(단위: 억 원)	'23 매출	'23 영업이익(률)
D사	5,117	608 (12%)
E사	2,850	420 (15%)
한미정밀화학	1,111	-38 (-3%)
H사	768	101 (13%)

CONTENTS

01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02

주주총회 주요 의안
세부사항

03

Business Highlights

04

팩트체크
(Q&A)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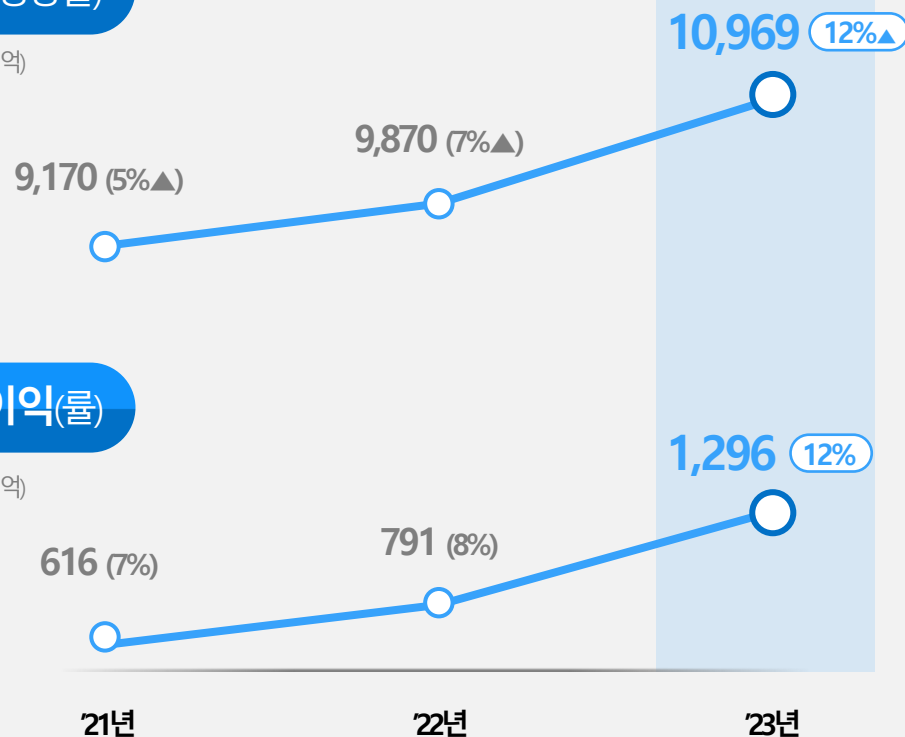
Appendix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23-현재)의 한미약품 경영실적 비교 : 별도기준

- '15년 이후 Organic한 성장으로 최대 실적 달성 (2023~2024 현재) * '15년: 매출 1.1조 (사노피 등 기술수출 0.5조 포함)
- 국내·해외 고성장 지속 및 업계 최고수준 수익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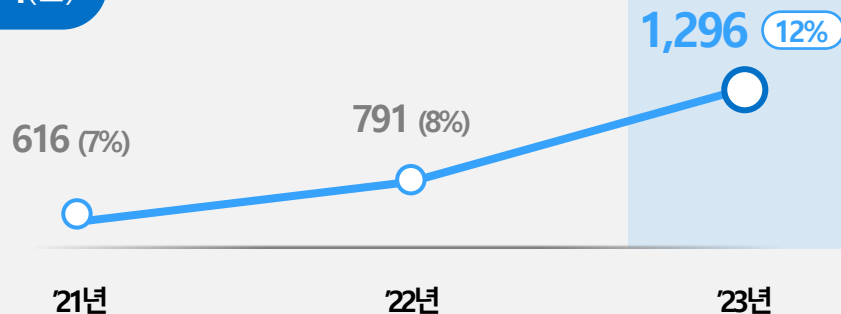
매출 (성장률)

(단위: 억)



영업이익(률)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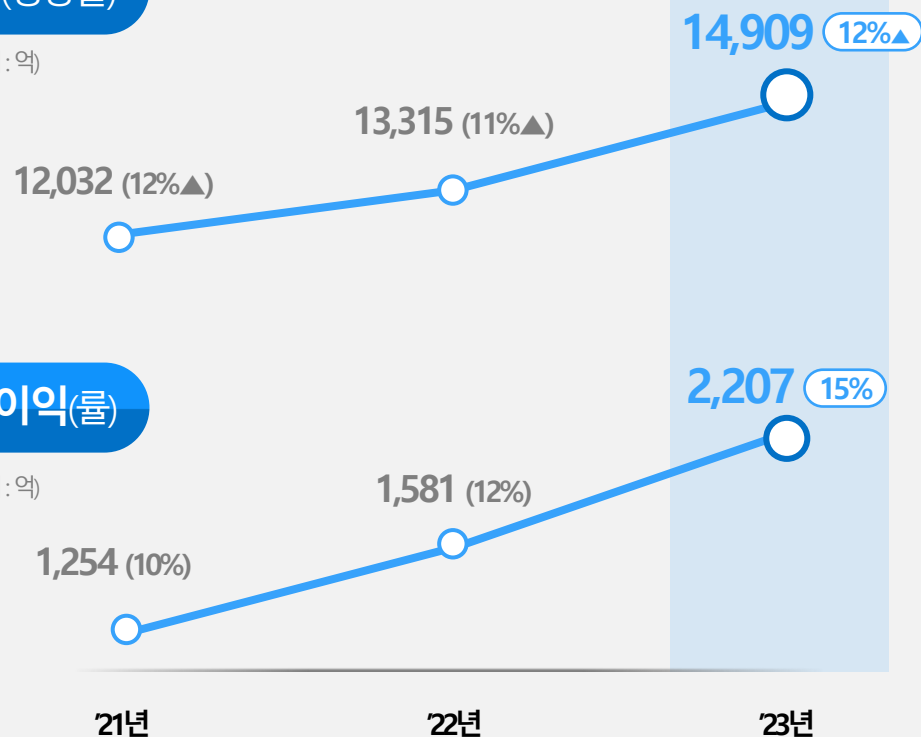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3Q 누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매 출	9,170	5% ↑	9,820	7% ↑	10,969	12% ↑	8,336
국 내	7,682	10% ↑	8,156	6% ↑	8,863	9% ↑	6,819
ETC	7,249	10% ↑	7,639	5% ↑	8,321	9% ↑	6,460
OTC	433	9% ↑	517	19% ↑	542	5% ↑	359
해 외	1,474	14% ↓	1,658	13% ↑	2,160	30% ↑	1,535
Pharm	805	8% ↓	805	-	1,003	25% ↑	739
Solution	422	2% ↓	566	34% ↑	604	7% ↑	453
바이오	27	89% ↓	254	843% ↑	298	17% ↑	291
기술수출	220	33% ↓	34	85% ↓	255	653% ↑	52
기 타	14	54% ↓	6	60% ↓	△53	-	△18
영업이익(률)	616 (6.7%)	136% ↑	791 (8.1%)	28% ↑	1,296 (11.8%)	64% ↑	1,030 (12.4%)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23-현재)의 한미약품 경영실적 비교 : 연결기준

- 중국 시장의 우호적 환경 속 제품 성장세 지속
- 경영체질 개선 및 원가 효율화로 이익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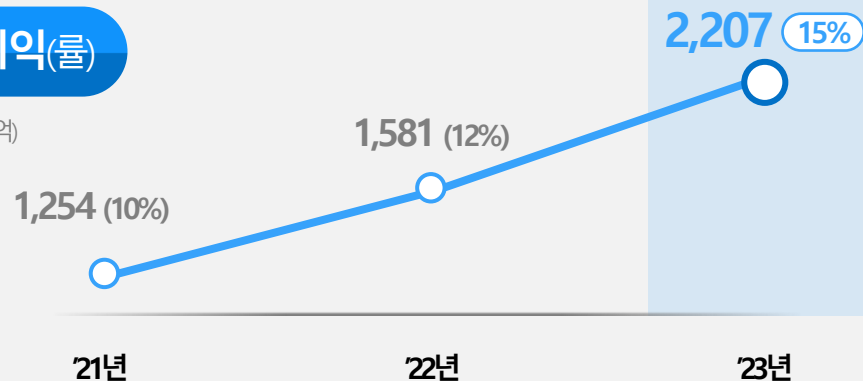
매출 (성장률)

(단위: 억)



영업이익(률)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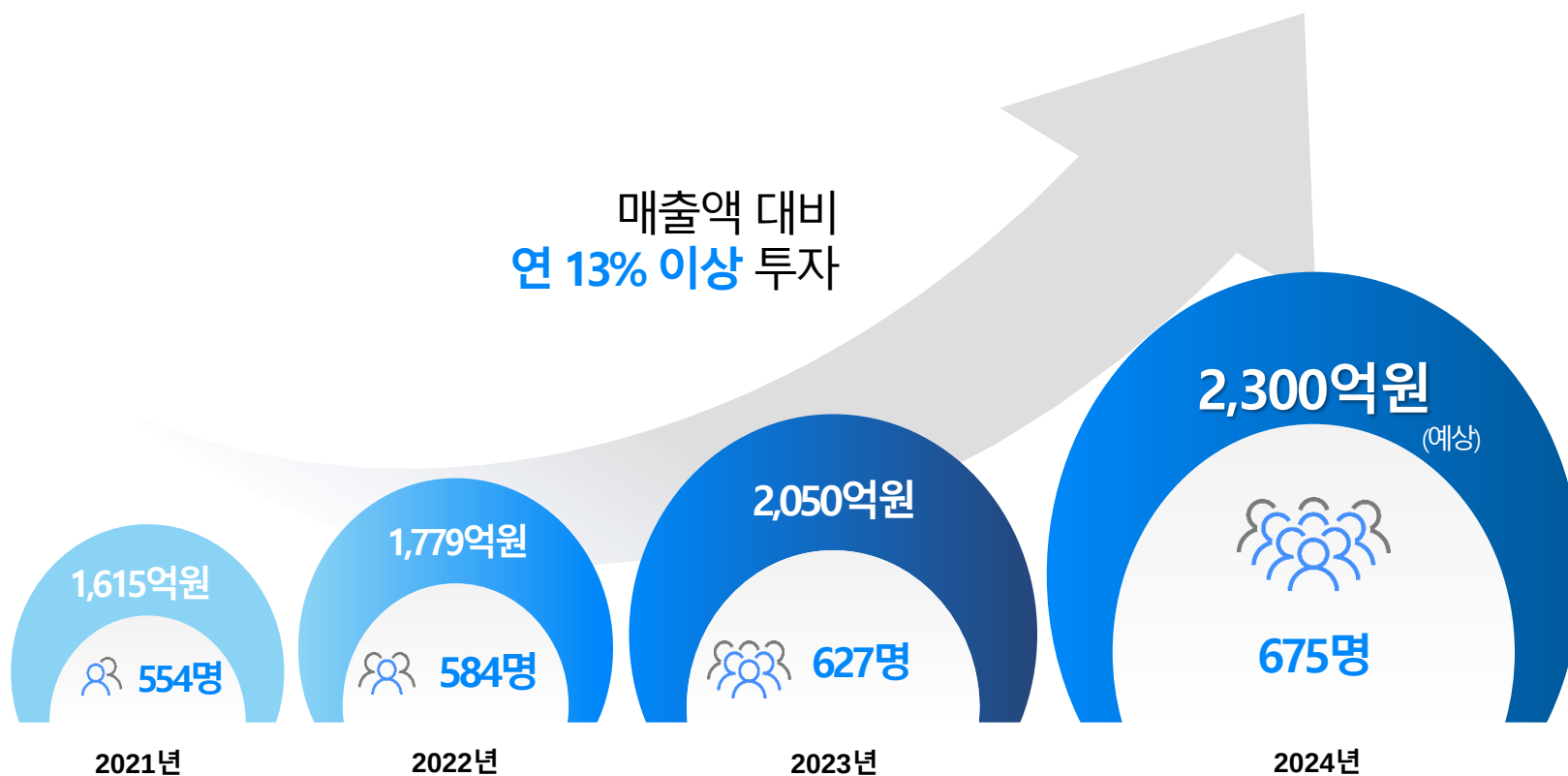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3Q 누계
매 출	12,032	12% ↑	13,315	11% ↑	14,909	12% ↑	11,439
약 품	9,170	5% ↑	9,820	7% ↑	10,969	12% ↑	8,336
북 경	2,887	42% ↑	3,506	21% ↑	3,977	13% ↑	3,108
정 밀	872	2% ↓	1,005	15% ↑	1,111	11% ↑	882
영업이익(률)	1,254 (10.4%)	156% ↑	1,581 (11.9%)	26% ↑	2,207 (14.8%)	40% ↑	1,857 (16.2%)
약 품	616	135% ↑	791	28% ↑	1,296	64% ↑	1,030
북 경	669	186% ↑	783	17% ↑	989	26% ↑	786
정 밀	-59	적자지속	14	흑자전환	-38	적자전환	32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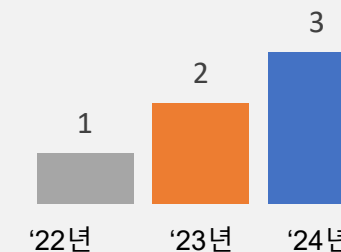
지속적인 "R&D 투자" 및 "신규 모달리티"(mRNA, ADC, TPD, CGT, sdAb, RPT 등) 확대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연간 R&D 투자 금액, 연구인력 및 임상단계 신규 신약파이프라인의 지속 증가



임상IND 승인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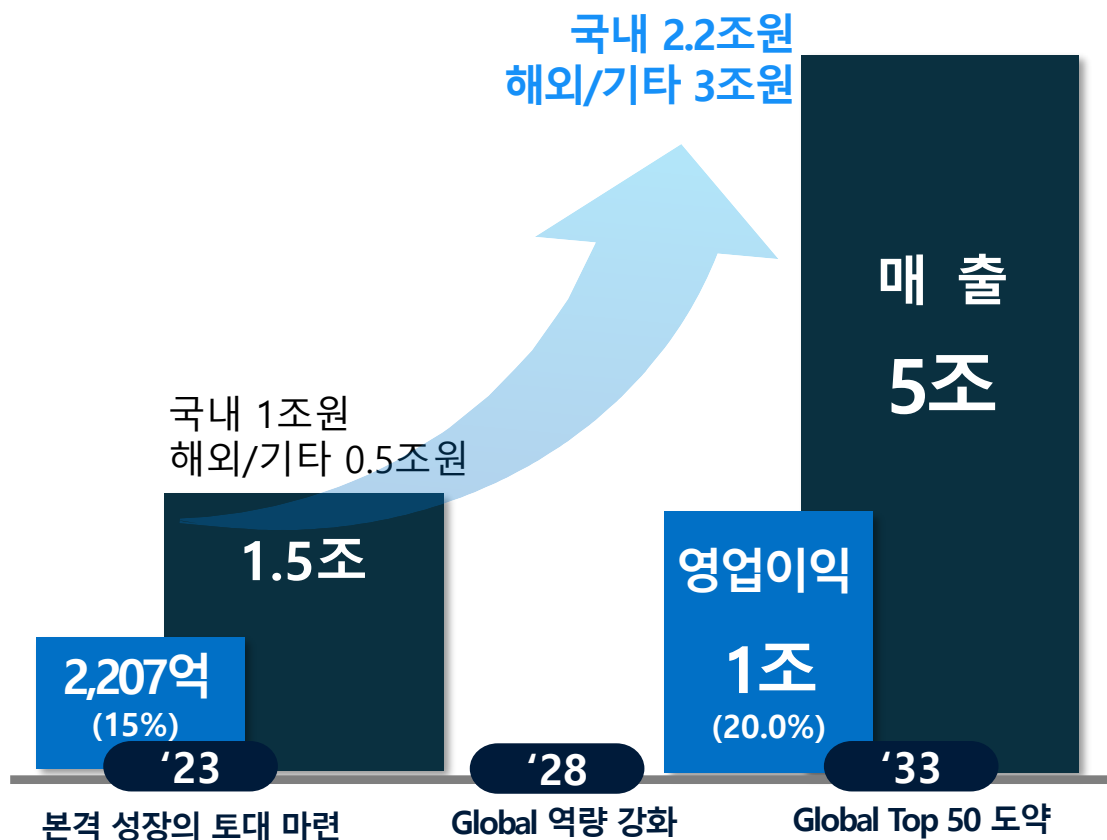


신규 임상파이프라인
지속 증가

* ADC: Antibody drug conjugate, TPD: Target protein degradation, CGT: Cell and Gene Therapy, sdAb: Single-domain antibody, RPT: Radiopharmaceutical Therapy

한미약품 중장기 계획

중장기 전략 실행을 통해 **10년 내 5조 매출 달성**과
Top-tier 제약사로 도약하겠습니다.



성장 전략을 위한 각 본부별 Key-point

국내사업본부	- 근거 중심의 마케팅 및 환자 맞춤 치료 전략 강화 - 국내 M/S 압도적 1위 및 혁신신약 론칭
신제품개발본부 제제연구소	- 신규 용법·용량 등 새로운 적응증을 위한 개발 -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위한 신제품 출시
R&D 센터	- 새로운 모달리티로 First-in class 전략에 따른 파이프라인 구축 - License out 및 자체개발을 통한 신약 가치 고도화 추구
Global본부	- Hanmi Brand의 세계화 - 신약/신제품의 Global Market 역량강화

한미약품 중장기 전략방향

Global Top-tier Healthcare Company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Phase I : '24~'25년	Phase II : '26~'28년	Phase III : '29~'33년
전략 방향	국내시장 초격차 달성, Global 시장 진출 토대 마련	혁신신약/복합신약 매출 확대 Global 사업 역량 강화	혁신신약 주도 성장 가속화 Global Top 50 도약
R&D	- 신규 플랫폼/모달리티 확보 - 해외 임상/인허가 역량 강화	-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 License-in/out 성과 가시화	- Global 신약 허가 확대 - Global R&D 거점 운영
국내 및 Global 시장	- 국내 M/S 압도적 1위 달성 - 시장분석 및 국가별 거점망 구축	- 기존 영업망 기반으로 신규 채널 발굴 - 개량/복합신약 Global 성장 본격화	- 국내외 혁신신약 매출 확대 - 글로벌 판매망 역량 극대화 및 제조 거점 확보
인프라 경영/제조	- 도전/혁신의 조직문화 구축 - 운영체계 효율화 및 재정비 주력	- 전략적 제휴 활성화 - Global 운영 인프라 구축	- 초일류 기업 문화 구축 - Global 인재 육성 및 영입

한미약품 거버넌스 개선 계획

한미약품 그룹의 글로벌 비전과 산업의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Reinforce

- 이사회추천을 위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고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
- 보상위원회, CEO 지명위원회, ESG 위원회, C-레벨 채용 및 승진 위원회와 같은 **주요 위원회를 별도 구성**
- **전문위원회**를 통한 **Global Standard**의 객관적인 **Board Skills Matrix** 시스템화
- 주가 성과 및 총주주수익률(TSR)과 같은 **주주 가치 지표에 연계된 KPI**를 도입

Establish

- 내부 및 외부 후보자 풀 운영, 위원회 중심의 후보자 검토 등 **체계적인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전략과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가칭 경영위원회)** 운영 (예: 전략적 투자, M&A 등의 객관적 검토)

Advance

- 가족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조언 및 견제 역할에 집중하거나 고문 등의 지위로 자문 역할에 한정
-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도록 노력

한미약품의 주주환원정책 계획

내년 2024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 및 무상증자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처음으로 중간배당 실시

■ 계획

한미약품 이사회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아래의 정책 방향성을 기초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24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¹⁾주주환원을 확대 및 주가 수익률을 반영한 중장기 ²⁾TSR 목표 제시
- 정기적인 중간배당 및 현금배당 확대 고려
- 주주환원 규모 내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고려
- 주주 친화적 경영환경 구축
- 정기적 IR 설명회 개최 및 중장기 기업가치 Value-up 계획 실천

1) 주주환원을 : (현금배당+자기주식 매입) / 연결 당기순이익

2) TSR(Total Shareholder Return, 총 주주수익률): 배당소득+주가평가 이익 (주주들이 일정기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

CONTENTS

01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02

주주총회 주요의안
세부사항

03

Business Highlights

04

팩트체크
(Q&A)

05

Appendix

Q 한미약품이 추구하는 차별화된 전문경영인 체제는 무엇인가요?

A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5 본부, 1 R&D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선진화된 경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약품은 '23년부터 전문화된 영역별 본부장 중심의 선진화된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핵심 사업부를 각 본부장이 책임지는 '전문경영인 그룹 의사결정체'를 구축, **최고경영인인 대표이사가 각 본부장들과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 최상,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문경영인 그룹은 국내사업본부/신제품개발본부/Global본부/경영관리본부/제조본부/제제연구소/R&D 센터로 구성되며, 이를 대표이사가 리더가 돼 'One Team'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이러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원 및 감독하며, 경영진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지원 및 감독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추구합니다.

한미약품이 추구하는 선진 경영 체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최고경영진에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주가 가진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356년 역사의 글로벌 제약 화학 기업 머크의 전문경영인 선발 체제가 롤모델입니다.

머크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 일원과 머크 사업 분야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파트너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이후 파트너위원회가 머크의 최고경영진(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최고경영진은 독자경영을 하며 대주주의 감독을 받습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이 선두에서 이끌어어나가고, 대주주는 이사회 통해 전문경영인을 지원/감독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Q 그렇다면,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A **한미약품은 이미 지난 30년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비약적인 성공을 이뤄왔습니다.**

- 정지석 대표이사 (1995-1999) / R&D 약학 전문가 / R&D 중심 추진, 노바티스사 당시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 민경윤 대표이사 (2000-2006) / 제약 영업 및 경영 전문가 / 한국 최초 개량신약 '아모디핀' 개발 전폭적 지원, IT 기반 모바일 오피스 구축
- 임선민 대표이사 (2006-2012) /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 의약품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 매출 20위권 한미약품을 업계 2위로 퀀텀점프
- 장안수 대표이사 (2007-2010) / 학술 전문가의 외부 영입 / 한미약품의 영업, 마케팅 방식을 '학술적 근거중심'으로 방향 대전환
- 이관순 대표이사 (2010-2016) / 신약 연구개발 전문가 / 제약바이오 산업 사상 최대 규모 신약 라이선스 아웃 계약 주도
- 우종수 대표이사 (2017-2023) / 제제연구 및 제조 전문가 / 매출과 R&D가 선순환하는 전략 실현의 원천인 개량, 복합신약 개발을 주도
- 권세창 대표이사 (2017-2023) / 바이오신약 R&D 전문가 /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플랫폼 기술인 'LAPSCOVERY' 개발 및 신약 기술수출 주도

박재현 대표이사 2023 ~ 현재

**제제연구, 제조 및 경영관리 전문가 / '코로나 사태, 경영권 분쟁,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독보적 경영 실적' 갱신 중**

→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지난 1년여 동안의 한결같은 목표는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의 해임입니다.

Q 만약, 박재현 대표이사가 해임이 된다면 한미약품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요?

A **신약 R&D 기반 약화로 신약 명가, 제약 강국의 동력이 약해집니다.**

- 1)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시총 200조를 만든다는 형제측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한미약품의 인력과 자산의 누수로 한미약품의 기반이 심각히 손상 받을 것입니다.
- 2) 기존의 연구방향을 무시한 무분별한 Open innovation은 연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연구비 등 연구 자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 무분별한 Licensing-in은 연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설익은 Licensing-out은 회사의 value-up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A **투자나 M&A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한미약품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 1) 투자나 M&A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 국내시장의 초격차와 연구중인 글로벌 신약이 글로벌시장의 기반을 만들고 의미있는 매출을 만든 후, **대도약이 필요할 시점에 투자나 M&A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과거부터 판매해오던 제품이나 성장세가 더딘 영역을 치료영역확장(TA)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늘이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만 증가하여 회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 현재 형제의 투자 검토는 신약에 투자되어야 하는 미래를 위한 연구비를 **현재의 자기과시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막아야** 합니다.

A **핵심 자회사인 북경한미의 판매 정상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1) '24년 하반기 북경한미의 매출 부진은 형제측이 실소유자인 알엠케이(RMK)의 판매 부진에 기인한 것입니다.
- 알엠케이(RMK)는 북경한미로의 장기미회수채권 미납금이 증가하면서, 북경한미 더 나아가 한미약품의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 이를 막기위해, 북경한미 동사장(현 한미약품 대표)은 판매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 2) 만약 형제측이 한미약품 경영권을 확보하면, 알엠케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현재 한미약품 대표이사(북경한미 동사장)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북경한미로 거듭나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형제 측은 박재현 대표이사를 수 차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측이 박재현 대표이사를 3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1) 임종윤 이사가 박재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2024.9.4)

- 한미약품 계열사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에 박재현 대표가 선임되자,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중국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박재현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동사장 등기 서류를 수령하여, **현재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임종윤 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그룹 한성준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2024.11.15)

-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의 한미약품그룹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단과 관련한 기부 결정에 대해 '배임'으로 고발했으나,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한미 창업주의 유지를 잇는 그룹의 중요 자산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지난 12년간에도 재단 기부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3) 한미사이언스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2024.11.18)

- 한미약품 임시주총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발입니다.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공식화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現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한미약품의 고유한 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고발 건들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해 근거가 없고, 무고함을 밝힐 계획입니다.

Q 그렇다면, 한미사이언스 측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 한미약품의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난 3월 한미약품 주총 이후 형제 측의 업무방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형제측의 한미약품의 업무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대표가 되기 위해 현 박재현 대표이사의 해임을 시도해 왔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 임종훈 이사의 경우, 계열사는 지주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미약품의 고유 업무인 인사, 재무 등의 결정을 제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기존 업무위탁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1) 형제측은 3건의 고소고발(8건의 세부 고소고발건)을 통해 해임의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 형제측의 고소고발은 임종윤 이사의 업무방해를 제외하면, 한미약품 대표의 해임안을 의안으로 하는 이번 **임시주총이 확정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각 사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2) 조직의 안정화와 임직원간의 결속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3)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회사와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은 이미 진행**했습니다. (2024. 11. 25.)



전문경영인 체제가 유지되면, 한미약품의 목표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인가요?



5년內 3조, 10년內 5조 이상의 매출을 목표하고, 쏠분야에 大도약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 1) 저희들은 이미 2015년 8조원 이상의 기술수출을 통해 한미약품의 이름을 글로벌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수출 반환 등의 아픔을 겪으면서 더 큰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는 신약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기술수출 뿐만아니라 완제품으로 글로벌에 한미약품의 이름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 2) 해외시장으로의 **한미약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 3) 반환된 물질에 대한 재투자 및 개발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반전의 혁신'**을 이루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4) 현재 연구중인 신약을 기반으로 **10년內에 글로벌 제약 50위 이내로** 진입하고, 당사가 한국의 제약 주권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앞장서겠습니다.
- 5) **한미약품의 목표과 성공 DNA**를 각 계열사로 **횡전개하여, 사업의 목표와 오퍼레이션 수준을 상향**하고, **하나된 방향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주주처럼, 주주를 직원처럼 생각하며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이념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1) '25년 정기주주총회 전에 주주를 위한 **주주친화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습니다
- 2) 회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현장의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회의체 및 위원회를 운영** 계획입니다.
- 3)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와 소액주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 4) 임직원의 해외근무(주재/파견) 기회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CONTENTS

01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02

주주총회 주요 의안
세부사항

03

Business Highlights

04

팩트체크
(Q&A)

05

Appendix

한미사이언스측 9월 30일자 보도자료 - 부당한 해임사유



자료번호	2024.09.30
보도요청	배포 이후
문의	김영진 (02-410-9132) Email: media@hanmi.co.kr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하는 공문 30일 발송

-경영상 혼란 일으킨 장본인과 옆에서 부추긴 이사 책임물을 것

-박재현, 신동국 해임 및 신규 이사 2명 선임 논의할 것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가 30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30일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할 안건으로 이사 해임에 1-1)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및 1-2)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선임에 2-1)박준석(이력 하단 참조), 2-2)장영길(이력 하단 참조)을 각각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공문을 통해 “당사(한미사이언스)는 귀사(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귀사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한미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적 효율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그룹 내 확립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상호 WIN-WIN이 되는 구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임직원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당사와 귀사가 ‘한미’라는 이름 아래 힘을 모으는 데에 뜻을 같이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귀사의 박재현 대표이사는 수장으로 모든 임직원을 아우르고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버려둔 채로 당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운운하면서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약과 개량신약의 R&D 분야를 모두 선도하였던 한미그룹 명성이 예전 같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시장의 평가까지 더해지고 있는 지금 당사는 귀사의 최대주주로서 더 이상 현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귀사의 경영상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나 이를 옆에서 부추긴 이사를 전면 교체하고 그 동안 묵묵히 한미그룹에서 경험을 쌓고 각 부문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온 명망 있는 분들을 신규 경영진으로 모셔와서 한미그룹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가 촉발한 내부혼란에 대해 이사회 해임은 물론 이로 인해 빚어질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정 대주주가 요청한 인물을 취임시키기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을 내고 문제가 되자 뜬금없이 ‘독립경영’을 주장하며 그룹사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실패한 OCI 매각 때처럼 조직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현 대표는 과거 OCI와의 거래를 추진했던 기획실 근무경력의 외부인 1인을 포함, 2명의 임원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조치를 취해 그룹 전체에 혼란을 초래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지주사체계 출범 후 지주사가 인사, 회계, 법무, 총무 등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형태로 성장해왔는데 충분한 검토나 논의를 생략한 채 난데없이 명령을 수행하듯 본인 명의로 인사발령부터 낸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다.

또 특정 대주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요 결정사항에 박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신동국 이사가 한미약품의 핵심역량인 R&D에 대해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자 박재현 대표가 ‘추가 R&D 투자는 필요없다’고 화답하는 등 한미의 DNA이자 회사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구성원은 물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며 “R&D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대주주가 이런 발상을 하고, 또 마치 충성을 다짐하듯 대표이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매우 참담한 마음이다. 이들은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며 이사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박 대표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전문경영을 한 게 아니라 OCI에 매각 건을 포함해 특정 대주주의 충실한 꼭두각시 역할만 했다”며 “말로는 R&D와 독립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구성원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해사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의 41.42%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주요주주로는 국민연금 9.27%, 신동국 9.14%(한양정밀 1.42% 포함)를 보유중이며, 나머지 41.59%는 기관 및 외인, 일반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에 대한 업무방해

노컷뉴스

2024. 10. 4.

[단독] "대표 승인 없이 부사장 인사?"...한미약품 업무도 마비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이에 정상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그룹사의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한미약품에는 별도 인사나 총무, 관재 등의 조직이 없고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지주사가 사업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그러나 한미약품그룹의 형제와 모녀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상 업무 지원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한미약품 예산 집행 처리가 진행되지 않거나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결재하지 않은 사항들이 마치 한미약품 대표의 승인이 난 것처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는 사내 전산망에서 대표의 글쓰기 기능도 삭제하고, 대표의 최종결재자 지위를 중간결재자로 대표의 동의 없이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계열사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지주회사가 핵심 사업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방해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4271?sid=105>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

한국경제

2024. 5. 14.

송영숙 회장, 결국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해임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공동대표인 송 회장 해임안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서 통과됐다. 송 회장은 한 달 만에 한미사이언스 공동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임시 이사회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공동대표가 소집했다. 임 공동대표는 임원 인사 문제로 모친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송 회장 측근 임원을 해임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모친을 공동대표에서 몰아내겠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송영숙·임종훈 공동대표 체제에서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공동대표 체제는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 송 회장 단독 대표 체제에서 차남 임종훈이 공동 대표이사로 지난달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바 있다. 형제 측 이사진이 이사회 다수를 장악하면서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가 가능했던 만큼 공동 대표 체제가 가족 간 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됐지만 모친이 해임되면서 가족 간 분쟁도 재점화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4508?sid=101>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

서울경제

2024. 10. 7.

갑작스런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업무방해 진상조사가 도화선 됐나

한미사이언스가 느닷없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업무방해 진상조사를 계기로 형제 측이 '급발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해결 요청' 취지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여기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계열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지주회사가 핵심 사업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난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에 대한 감사위 조사 문제가 다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 대표 해임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역시 이사회 권한을 침해 당해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9784?sid=101>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서울경제

2024. 7. 7.

[단독] 한미약품, 북경한미 내부조사 착수... "코리그룹과 부당내부거래 의혹"

한미약품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실소유주인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 한미약품은 감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북경한미에 대한 업무진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계약과 자금집행 등 **북경한미 업무 전반과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은 **임 사내이사가 100% 소유한 코리홍콩의 북경한미에 대한 초과 수익 발생 가능성과 함께, 북경한미의 지원을 통해 벌어들인 코리그룹 수익을 또 다른 투자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 오너 일가 분쟁의 불씨가 된 원인 중 하나가 코리그룹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한미그룹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에도 임 사내이사는 코리를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63014?sid=101>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한국경제

2024. 8. 28.

한미약품 사장, 하루아침에 전무로 '기습 강등'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장)의 직급이 전무로 강등됐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 본사가 아닌 지방 지사에 있는 제조본부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 인물로 평가받는 **박 전 대표**는 '장수 CEO'로 꼽혔던 **우종수·권세창 전 한미약품 대표 대신 지난해 대표 자리에 올라 '세대교체 주역'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한미그룹 인트라넷에 본인 명의로 인사를 내며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새롭게 꾸렸다. 경영관리본부 안에 인사팀과 법무팀 등을 신설했다. 이전까지 한미약품은 자체적인 인사팀이 없었다. 박 전 대표의 인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인사팀이 한미약품 인사를 관할했다. 박 전 대표를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 명령은 그로부터 1시간 뒤 인트라넷에 올라왔다. 임종훈 대표가 낸 인사 명령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 외에도 사직서를 내거나 사직을 고려 중인 경영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7049?sid=105>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MTO 머니투데이

2024. 11. 22.

“지속가능경영 성과 입증”...한미약품,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 표창

한미약품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박재현)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략...)

특히 한미약품 최고 경영진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회적 책임 완수와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에 기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한미약품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경영이념과 추진 의지를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신뢰경영'을 경영 슬로건으로 삼고, 2022년부터는 '지속가능 혁신경영'을 경영방침에 반영하는 등 꾸준히 실행해 온 노력은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사회적 책임 완수와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에 기반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재현 사장은 “한미약품은 흔들림 없는 R&D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토대로 매년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8198?sid=101>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Chosun Biz

2024. 10. 30.

[단독]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R&D 투자 줄인다는 건 거짓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자신을 공격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형제가 근거 없이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의 R&D 투자액이 너무 많다고 하자 내가 추가 R&D 투자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하는데, **신 회장과의 대화에서 R&D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약품은 R&D 투자액을 전체 매출액의 10% 중반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이는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다”며 “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R&D 투자액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R&D와 관련 연구원 채용도 늘리고 있는데, 사실무근인 내용이 나와 황당하다**”고 했다. 박 대표의 설명이 맞다면 임종훈 대표가 이끄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8178?sid=101>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MoneyS

2024. 11. 18.

[사실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이직 행렬?... 직원 수 되레 늘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직원들의 이직 행렬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 모두 직원 수가 늘었으며 퇴사자 수만 놓고 봤을 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3분기 말 한미약품 직원 수는 2396명이다. 전년도 말(2337명)보다 2.5% 많다. 남직원 수와 여직원 수는 동 기간 1.7%(1645→ 1673명), 4.5%(692→ 723명) 확대됐다.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미약품 신약개발 R&D(연구·개발) 인력도 올해 675명으로 지난해(627명)보다 7.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전년 대비 비교 없이 단순히 올해 퇴사자 수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약품그룹의 인적자원은 매년 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전문경영인과 사업 본부장 리더십 아래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여러 사업 부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9403?sid=101>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

PRESS9

2024. 11. 11.

한미약품 “10년내 매출 5조, 영업이익 1조 달성”...중장기 전략 발표

한미약품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발표를 통해 혁신신약 주도 성장으로 10년 내 5조원 매출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2024 Hanmi Pharm innovation Day)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국내에서 2.2조원, 해외 등에서 3조원의 매출을 올려 1조원 영업이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미약품은 Global Top-tier Healthcare Company 도약을 목표로 내년까지 국내시장 초격차 달성과 Global시장 진출 토대 마련하고 **오는 2028년까지는 혁신신약·복합신약 매출 확대, Global 사업 역량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거버넌스 이슈가 아닌, 한미약품 본연의 사업 성과와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거버넌스 관련 질의응답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온전히 사업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고 문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려 한다”면서 **“장기화 되고 있는 경영권 이슈에 가려져 있던 한미약품의 미래가치가 온전히 조명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60873>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



2024. 10. 14.

‘배신자’ 시각의 오류, ‘한미정신’ 살리는 소방수였다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했나? “한미 매각 막는 일, 배신 아닌 당연한 일”

이종 타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형제와 뜻을 함께 했을 뿐이다. 형제 편에 선게 아니라 이종 타기업으로의 매각을 막는 길을 택한거다. 이후 모녀와 연합을 맺은 건 또 다른 문제다. 모녀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가가 계속 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형제 입장에선 신 회장이 ‘배신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나의 기준은 늘 한결같다. 한미약품그룹의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결정인지 여부다.

기업가치를 해칠 수 있는 결정엔 동의할 수 없다.

그간 한미약품그룹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방수 역할을 한 것처럼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0100607074240108872>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



2024. 10. 14.

전문경영인이 만들 밸류업 기대, 대주주 역할은 ‘후방지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분쟁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인물이다. 7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주식 일부를 매입하는데 총 1644억원을 썼다. 오너 주식이 시장에 대거 풀리는 오버행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책이었다. 이때 신 회장이 시세보다 15%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

그는 선대회장이 구축해 놓은 자산을 밑거름 삼아 한미약품그룹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밸류업의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경영 정상화’라고 강조한다.

오너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전문경영인 시스템이 그가 꾸준하고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유일한 정상화 대안이다. 스스로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만 경영자로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단 한명의 회장체제가 아닌거다. 한미약품그룹은 주인은 있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가 돼야 한다. 오너 한사람이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경영은 아니라고 본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0100816335300105889>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설명자료

감사합니다 .
